



정영제



강경구

라온아띠 12기 필리핀 팡가시안링 최종보고서

백지연



정구인



목차

1. 덩프사이트

2. 푸가르

3. End Poverty

4. 홈스테이

5. 워크캠프

6. 에세이





4명 모두 아띠클라쎌에 참여.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진행하였다.

| | | | | | |
|-----|---------------------|-----|-----------------|-----|----------|
| 1교시 | 따갈로그, 영어 동 요 부르기 | 3교시 | 기본 영어 배우기 | 5교시 | 놀이로 복습하기 |
| 2교시 | 알파벳 송 부르기 | 4교시 | 배운 것 직접 써보 기 | 6교시 | 간식시간 |

좋았던 점

마지막 주에 미술수업(종이접기, 왕관만들기)을 실시했다. 부모님들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생겼다.)

아쉬운 점

모든 수준의 아이들에게 아띠클라쎌를 진행하는 것은 많이 어려웠다. 아띠클라쎌를 진행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항상 장소를 옮겨야 했으며 공동묘지에서 아띠클라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했다.



* Feeding 프로그램

우리는 모든 아띠클라쎌가 끝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 간단한 비스킷을 준비해왔다. 그 중 2번은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왔다.

아쉬운 점

안양펀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또한 아띠클라쎌 준비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대부분 비스킷으로 간식을 대신했다.





상처치료 전 혹은 간식을 먹기 전 아이들과 함께 비누로 손을 씻었다. 그리고 상처가 있는 아이들만 간단하게 상처치료를 하였다.

좋았던 점

처음에는 상처치료를 거부하던 아이들이 우리와 깊은 관계를 쌓은 후에는 먼저 상처를 보여주었고 덕분에 아이들의 상처가 많이 호전되었다.

아쉬운 점

우리가 이 곳을 방문하지 않는 동안 아이들의 상처가 다시 심해지는 것.



이번 12기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만나고 관계를 쌓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그래서 집집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좋았던 점

가족사진 프로젝트를 통해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아버지들도 만날 수 있었다.

아쉬운 점

아피클라쎬로 인한 인원부족으로 잘 진행되지 못하였다.

10기, 11기의 자료조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마을 사람들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상처치유 ➡



House to House
(가족사진 프로젝트)





- 이주계획

우리가 처음 덤프사이트 활동을 시작할 때 코디네이터로 부터 우리가 활동을 마무리하는 12월에 주민들이 다른 안전한 장소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덤프사이트의 이주에 관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다.

- 크리스마스 파티

덤프사이트 활동을 마무리 하기 전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게임을 하고 아로스칼도를 먹었다. 또한 전에 찍었던 가족사진과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드리고 왔다.



첫번째, 데이케어센터



푸가로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푸가로 데이케어 센터에 방문 선생님의 수업을 보조하고 후에는 수업을 계획하기로 했다.

| | |
|----------|--|
| 이름표 만들기 | 아이들에게 영어와 한글이 함께 적힌 이름표를 만들어 나눠 주었다. |
| 수업보조 | 알파벳쓰기, 덧셈, 그림그리기 수업을 할 때 부족한 아이들을 도와주었다. |
| 크리스마스 파티 |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여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간단한 상품과 간식을 주었다. |

아쉬운 점

우리들이 하고 싶은 수업을 찾지 못하고 헤맸다.

그린하우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모든 시간을 그린하우스 프로젝트에 쏟아 데이케어센터에는 소홀해졌다.



푸가로

작물을 재배하기 힘든 환경(강한 햇빛, 염분을 머금은 해풍, 모래로 구성된 토양)의 푸가로에 집집마다 작은 가든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라운아띠가 한 일

(1) 그린하우스 짓기

컴포스팅 소일을 저장할 공간과 샘플 작물을 키우기 위한 공간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었다.

(2) 컴포스팅 소일 만들기

작물을 키우기 위한 컴포스팅 소일(마른 소똥, 마른 잎, 푸른 잎, 신문지, 음식물 쓰레기, 물)을 만들었다.

(3) 샘플 작물 키우기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식물(차이니스 펫차이, 고추, 가지 등)을 재활용된 플라스틱 병에 심었다. 심은 작물은 그린하우스 벽에 걸어 놓았다.



푸가로

좋았던 점

아이들이 그린하우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퇴비 만들기와 작물심기에 참여하였다.

아쉬운 점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

아띠들이 떠나고 나서 그린하우스관리에 대한 충분한 인수인계를 YMCA에 전달하지 못했다.





우리의 목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빈곤의 개념을 나누어보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필리핀의 가장 큰 교통수단인 트라이시클과 지프니에 스티커를 붙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빈곤퇴치에 대해 알 수 있게 해보자.

빈곤퇴치운동에 쓰인 포스터와 스티커

What is END POVERTY?

December 17 is a worldwide campaign for END POVERTY. United Nations supports the campaign achieving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hich has 8 objectives to help reduce poverty. Raonatti want to broaden the concept of poverty, not only the economical poverty or money, and also the poverty in our hearts.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4. Reduce child mortality
5. Improve maternal health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8.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Another concept of Poverty



Lack of Education

Due to lack of no proper education, there is miscommunication, language barrier, limited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they don't have a chance to make relationship with various people in the society. More people who are experiencing poverty did not give importance to education when they were young.



Corruption

People want to raise their social status and want to earn more money the easiest way. However, they are choosing a darker path to earn. For example, they cheat on budget or they do not move if there is no money involve. This is the most common factor of poverty.



Selfishness

Poverty is selfishness. Everyone has a free-will, but if they use it too much, it will be change to selfishness. Selfishness makes people uncomfortable, unfair, and unjust. People should take more care with each other to have a better society, less selfishness, and more considerate people.



Negative thinking

Negative thinking is also a part of poverty. If you are pessimistic, things you try to do will be less effective. Work environment will lead into a negative environment and thus, getting unemployed will be an outcome. Positive thinking will make people grow fruitfully. Thinking positively!



Laziness

Sometimes, people are unemployed because of laziness. They don't go to school or look for a job even though their situation is getting bad. Because of laziness, they prevent themselves to develop and throw away the opportunity to live a better life. This is one factor of poverty.



Lack of Motivation

Having a dream is trying to be better. So when you have a dream, you can overcome problems (poverty, unhappiness, difficulty) and prosper. If you do not have a dream, you will give up easily. People without dreams are considered the poorest.

Let's End POVERTY



Poverty is not only suffering from hunger or lack of money, so are selfishness, corruption, negative thinking, lack of education, laziness and lack of motivation.



일반 사람들의 생각

Poverty = Money

캠페인 당일에 우리는 3개의 조로 나뉘어서 진행을 했다. 3팀의 공통적인 부분으로 ‘당신은 빈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돈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우리가 준비해 갔던 다양한 확장된 개념의 빈곤 중에는 ‘부정부패’, ‘게으름’ 과 ‘교육’을 뽑았다. 또한 어떤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빈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실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



좋았던 점

- ① 우리가 생각하는 poverty의 개념을 하나하나 정의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에는 모호했던 poverty의 개념에 대해 꼼꼼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② 한 분은 poverty를 pangit(잘못됐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poverty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poverty에 대해 공감을 못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볼 수 있었다.

아쉬운 점

- ① 대부분의 지프니, 트리아시클 운전자들이 영어를 할 줄 몰라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캠페인이 대부분 코디네이터들의 말을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 보다는 코디네이터들이 생각하는 poverty를 설명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 ② 고등학교를 방문하지 못한 것, 그리고 컨디션 조절을 하지 못해 짧게 캠페인을 진행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다.
- ③ 시간을 좀 촉박하게 준비해서 우리 내에서도 poverty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지 못했다. 그래서 운전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마다 횡설수설하거나 말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곤 했다.





마을소개, 소감

약 한달 간 우리의 홈스테이 지역이었던 '산타크루즈'는 필리핀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농사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목축업 활동도 한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정경이 인상 깊은 곳이다.



우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산타크루즈의 사람들은 그들의 식구로 우리를 받아주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 한달 간 홈스테이를 하면서 필리핀의 삶을 더욱 면밀히 느낄 수 있었으며 필리핀의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한달 동안 홈스테이를 하게 해주신 모든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첫번째, 캠프소개



안양워크캠프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안양워크캠프가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는 안양의 중·고등학생들과 필리핀의 중·고등학생 및 팡가시난 YMCA의 사람들이 메인 Camper가 되었다. 라온아띠는 팡가시난 YMCA Staff의 자격으로 캠프에 참가하였으며, 팡가시난 YMCA와 안양YMCA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목표

- (1) 안양청소년들에게 필리핀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그 속에서의 느낌을 공유하며, 타국가의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
- (2) 건축 활동을 하며 성취감과 보람을 얻으며, 그 과정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도 이 캠프의 목적 중 하나였다.

두번째, 활동내용



(1) 산타크루즈 마을에 계단 만들기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마을 주민들의 이동지인 곳이 ‘산’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이 제대로 설비되지 않아 위험하고 특히 우천시 길이 미끄러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을 만들었다.

(2) Janacinto national Highschool 방문

이 곳에서 안양워크캠프와 라온아띠를 소개하고 교실과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필리핀 학생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3) Feeding Program

아로스칼도를 만들어 Elementary School Student에게 나눠주었다.

(4) 문화교류

홈스테이, Korean Food Festival & Filipino Food Festival, Team building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아쉬운 점

- (1) 소통의 부재(목적의 차이, 스케줄의 잦은 변화, 일과 휴식시간의 분업화)
- (2) 홈스테이 기간 중에 안양 워크 캠프가 진행 되어 모든 활동에 다 참여 할 수 없었다.

좋았던 점

- (1) 안양청소년들과 팡가시난 YMCA를 잇는 다리역할을 하면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줄 수 있었다.
- (2) 안양의 청소년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가왔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A group of people are sitting on a large, white, snow-like rock formation. In the foreground, a woman with long dark hair, wearing a grey t-shirt and a blue skirt, is sitting and making a peace sign with her right hand. Behind her, several other people are scattered across the formation, some sitting and some standing. The background shows more of the white rock formation and some dark, rocky areas. The overall scene is bright and sunny.

마지막 에세이



백지연 Charito

사람은 정말 적응의 동물인 것 같다. 잊지 말아야지 했던 일들 조차 눈에서 멀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희미해진다. 심지어 굉장히 화가 났던 일 조차.. 그래서 난 겁이 난다. 내가 필리핀에서 받았던 사랑, 행복 그리고 많은 추억들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지게 될 것 같아서... 그만큼 나는 그곳의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라온아띠가 되어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나는 잘 대답을 못할 것 같다. 마닐라에서의 마지막 전체 평가 날,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끝마쳤을 때 총장님은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나를 통해 누군가가 혹은 내 스스로가 변했는지 라고 하셨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변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였다.



필리핀을 떠나기 전, 낯을 많이 가리는 내가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을지 많이 걱정했었다. ‘아시아의 좋은 친구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아이러니하게 그 당시엔 내가 필리핀에 무엇인가를 ‘하러 간다’고 생각했고 필리핀 사람들을 무엇인가를 해줄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덤프 사이트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푸가로에서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사람들을 만나러 그 곳에 갔다. 내겐 동네 주민이 생겼고 가족이 생겼고 친구가 생겼다. 그래서였을까, 한국에서는 걸어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필리핀에서는 어딘가를 걷는 게 너무 좋았다. 왜냐면 그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을,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이다. 아피하우스에서 시장으로 걸어가면 서 만나는 트라이시클 아저씨, 과일가게 아주머니. 특히 홈스테이를 할 땐 우리집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있었는데도 그 길이 힘든게 아니라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다. 심지어 풀을 뜯어 먹는 소, 염소들과도 인사를 했다. 그 외에도 매일같이 함께 먹고 잤던 우리 팀원들. 내가 가면 반겨주는 우리 팡가시난 Y 식구들. 홈스테이를 하면서 너무 많이 정이 들어버린 우리 가족들,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동생들.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덤프사이트 식구들도. 필리핀에서 만난 모든 사람, 그들은 내가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내가, 사랑을 받는 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내가 이제는 알 것 같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하구나.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하구나. 처음에는 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어색했다. 왜 나에게? 궁금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 나를 사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주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준 사랑을 누군가가 받고 그렇게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점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지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상처 주는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은 허무맹랑한 듯 하지만 진심으로 그런 날이 왔음 좋겠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있는 한국, 그리고 저기 필리핀,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팀원들. 영제오빠, 경구 그리고 내 동생 구인이. 우리 팀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가끔, 아니 종종 내가 속 썩였지..? 미안하구 고맙구 그리고 정말 정말 사랑해!



정영제 ENZO

한국에 다시 돌아온 나는 다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선생님과 친구들을 볼 수 있다.
회와 소주를 먹을 수 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축구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빛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다.
더울 땀 언제나 에어컨을 트면 시원해진다.
배고플 때마다 냉장고를 열고 얼마든지 꺼내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적어도 당분간은)
필리핀의 가족들과 도글라스, 얌얌을 볼 수 없다.
논 한복판에서 펌프로 샤워를 할 수 없다.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볼 수 없다.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없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간튀김을 먹을 수 없다.
미친척하고 길거리에서 한국노래를 크게 부를 수 없다.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을 탈 수 없다.
산미구엘 진을 마실 수 없다.
해먹에 누워 두 시간씩 낮잠을 잘 수 없을 것 같다.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속속 뽑아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느낀 한국의 편리함과 필리핀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누리면서 살 수는 없을까?
내가 바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보통의 흐름에서 벗어나 살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무능력해 보이진 않을까? 나를 따돌리지는 않을까?
내가 필리핀에서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
어떤 면에서 성장했을까?
궁금하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천천히 발현되겠지.
한국에 돌아온 것이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



정구인 Mutya

5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울기도 울고 웃기도 웃고, 치열해져 보고, 아이들을 가르쳐도 보고, 삼질도 해보고, 한 달 동안 홈스테이도 하고, 서로를 미워도 해보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나에게 라온아띠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나중에 내 아이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후회 없이 살다 왔다.

라온아띠를 통해 난 나의 참모습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모습도 알게 되었다. 난 라온아띠를 통해서 나의 단점을 바꾸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오는 게 내 목표였다. 그런데 갔다 온 후 나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어쩌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단점이, 단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훌륭한 부분도 있다는 것.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나의 이 모습을 사랑해보자는 것. 그래서 그 시간이 참 감사하게 느껴진다. 항상 나는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 싶어 하고 남들에게서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흡수하려고만 했지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곳에서는 내가 꾸미지 않아도 무언가를 잘하지 않아도 나, 정구인이라는 존재 자체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다. 그래서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를 공감하게 만들어준 5개월이었다.

그 곳의 생활을 잊고 싶지 않아서, 초반의 힘들었던 내 마음을 적고 표현할 무언가가 필요해서 쓰기 시작했던 일기는 150일 동안 매일같이 적은 결과, 3장의 일기장으로 완성이 되었다. 내가 그 곳에 지내면서 가장 잘 한 일 중 한가지라고 생각이 된다. 아마 한 권의 책처럼 10년 뒤에도 그곳의 생활을 떠올리며 웃을 날이 있겠지.



필리핀에서 만난 소중한 나의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강경구 Pedro

야속하게도 ‘시간’이라는 기차는 멈추지 않는다. 5개월의 여정이 하룻밤의 꿈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문득 라온아띠에 처음 지원했을 때가 생각난다. 솔직히, 그때의 나는 단순히 호기심과 막연한 현실에서의 도피를 꿈꾸고 라온아띠를 지원했다. 이미 라온아띠에 신청서를 내는 순간부터 가면을 쓰고 나를 알게 모르게 포장했던 것 같다. 그랬던 내가 이곳에서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매 순간, 순간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로 다가왔다. 태풍으로 인해 아띠하우스에서 잠적했던 9월, 코디네이터들과 아옹다옹대던 10월, 수많은 인연들을 만난 11월, 홈스테이에서의 12월 그리고 1월... 인생에 있어 이번 5개월은 내 생애 다시없을 소중한 시간들이었음을 확신한다. 행복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생각나지 않았다. 마치 이곳이 원래 살아가던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필리핀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행운으로 생각한다.

물론 항상 행복했던 것 많은 아니었다. 언어, 환경, 사람.. 다양한 요소들이 나를 아프고 힘들게 했다. 특히 사람 간의 관계 맺음이 무척 힘이 들었다. 나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 나의 노력과는 다르게 일이 꼬여만 갈 때... 무언가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너무나 미워져서 그로 인해 그 주위 사람들까지도 미워지고, 혼자만 있고 싶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이 잊게 해주었다. 나를 보며 따스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네주는 사람들,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소소한 대화가 나에게 활력을 주고 필리핀에서의 삶을 뜨겁게 달궈주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또 나로 인해 아파했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다구판에서의 마지막 밤이 기억난다. 소감 발표를 마친 직후, 미워했던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라고 했다. 그 친구도 또한 '미안했다'며 서로의 손을 잡고 포옹을 했다. 짧은 말과 행동이었을 뿐인데 진심이 느껴졌다. 고작 이 짧은 순간을 위해, 두 달이란 시간을 돌아왔다.. 바보 같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기뻐다. 그 때의 진심 어린 심장박동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지난 5개월간의 삶을 돌아켜보면, 이유 없이 심장이 뛰다. 왜인지 모르겠다.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났다. 그 모든 사람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5개월은 끝이 났지만, 각자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에 슬퍼하지 않는다. 5개월간, 나는 나를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인생을 배웠다.



Panggood

PANGGOOD

우리 다시 만나요